

## 시나리오, 제2부

영원한 결혼에 대한 종교교육원 수업이 끝난 뒤, 루이스와 엠마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변화해야겠다고 느낀다. 그다음 주에 루이스는 종교교육원에 와서 엠마 옆에 앉은 뒤 자신을 소개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된다. 그들은 많은 활동을 계획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해 배운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서로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엠마는 조금 걱정된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성품들이 있다. 루이스는 이 중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루이스 또한 걱정한다. 그는 엠마를 사랑하지만, 자기 부모님의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았기에 결혼할 사람을 잘못 선택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그는 엠마와 나는 많은 대화와 함께한 경험을 통해 그녀에 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그는 자신들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엠마에게 청혼하고 싶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루이스는 엠마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기도로 여쭙는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준비 자료 제2부에서 배운 내용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본다. 엠마가 미래의 배우자에게서 찾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미래의 배우자에게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기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루이스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루이스가 계시를 받는 것을 이해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학생들에게 준비 자료 제3부를 살펴보게 할 수 있다.)
- 두 사람이 우정을 쌓고 서로의 자질과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더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나 체험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닳고 싶은 구주의 성품 한두 가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